호남지역 8만4천세대에 근로장려금

내일까지 650억 지급

광주 국세청 "추석 자금 수요에 보름 앞당겨 지원"

광주·전남 근로자 가구의 5.0%인 5만6천가구에 409억원의 근로장려금이 15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인 전북까지 포함하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호남지역에서만 8만4천가구에 650억원에 달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청 관내인 호남지역 수급자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11만가구 중 심사가 끝난 10만6천가구의 79.2%(8만4천가구)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만3천가구에 181억원, 전남이 3만가구에 228억원, 전북이 3만1천가구에 241억원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4천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1만4천가구는 지난 6~7월에 100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81.5%에 해당하는 57만4천가구에 4천405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48.4%)는 가구당 평균 58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800만~1천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근로소득이 1천200만~1천700만원 가구(23.7%)는 가구당 64만원을 받는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거치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2년 혹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막걸리 선물세트 등장 추석을 앞두고 13일 신세계 이마트 청계천점에 막걸리 선물세트가 등장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막걸리 선물세트는 총 4종으로 과실막걸리 세트를 비롯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캔막걸리세트, 떡으로 만든 생주 세트 등으로 3천원부터 6만원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 보였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경기 회복세에 투자심리 회복 내수·업종 대표주 중심 접근을

잠시 조정양상을 보이던 글로벌 증시가 짧은 조정을 뒤로 하고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로 돌아섰다.

전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한때 불거졌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G20회담 이후 사실상 소멸된 것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특히 급등에 대한 부담이 긴축 우려감과 맞물리면서 8월 한 달 동안 22% 급락했던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원자바오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데 힘입어 3,000선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증시도 3주 동안의 지루했던 기간조정을 끝내고 상승세에 동참해 1,650선을 넘어섰다. G20회담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7월의 상승국면과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금통위 이후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이 불거져 나오고 국내 주식형펀드에서의 환매물량이 늘어나는 등 부담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및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악재를 상쇄해주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연중최고치를 경신한 것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표적인 주도주였던 LG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투신권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 속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배경으로 꼽히는 환율 하락이나 단기급등 부담 등은 삼성전자 등 여타 주도주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적으로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 충돌에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 철저하게 IT와 자동차주 중심으로 양극화·차별화 양상을 지속했던 것에 비해서 시장내 매기가 점진적으로나마 확산되는 조짐에 대해서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 이외에도 철강·은행·백화점·조선 등의 업종이다. 은행주는 워낙 기존에도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여타 기존에 소외되던 업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그동안의 양극화 장세로 업종간 주가 괴리도가 과도하게 확대된데 대한 반발작용도 높아진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시장대응에 있어서는 상승추세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내수주나 업종대표주 등을 중심으로 관심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접근이 요구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GS건설, 입주민들 '여유있는 삶' 위하여

수완자이아파트 '자이안센터' 오픈

실내 골프 연습장·놀이방 등 갖춰

'아파트를 짓고 팔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GS건설이 아파트 입주 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GS건설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내 수완자이(433세대)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센터'를 오픈했다. 자이안센터(830㎡)는 휘트니스센터·실내 골프연습장·어린이도서관·놀이방·멀티미디어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 GS건설은 향후 1년간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매주 프로골퍼를 초청,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원 포인트 레슨도 실시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해 '매취순 3ℓ' 출시

보해가 3ℓ 짜리 대용량 '매취순 10년'을 출시했다. 전통주 잔으로 65잔 정도가 나온다.

보해는 13일 "매취순 출시 20주년을 맞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3ℓ 대용량의 '매취순 10년'을 특별 기념제품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매취순 10년'은 국산 청매실을 원료로 10년간 숙성시킨 프리미엄 매실주로 맛과 향이 깊고 진하다는 게 보해양조측 설명이다.

매취순은 지난 1990년 출시 이후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면서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0년에는 세계 와인경쟁대회 'AWS Wine Competion'에서 과실와인 부문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